

#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산학연 뭉쳤다



28일 오후 광산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모빌리티 산업혁신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강기정 광주시장, 조환익 추진위원장, 산·학·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글로벌모터스서 추진위 출범 완성차업체·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광주 제조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을 혁신하고,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산·학·연이 뭉쳤다.

광주시는 28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위에는 광주 완성차업체인 기아차,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역 소재 자동차부품사,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남대학교, 조선대, 호남대,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학연 대표 주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추진위원들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를 위한 첫 단추인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를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환익 추진위원장은 "중요한 변곡점에 추진위원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에너지 밸리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산업은 전통적인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로 대전환하는 중요 시점이지만, 광주 소재 자동차부품기업 대부분은 자본력이 영세하고 미래에 대한 대처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지역 제조업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광주의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광주시의 우려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를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 현실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실제 지난 10월 국토부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7일에는 국토부의 현장실사도 받았다.

국토부는 12월 중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경제의 중심축이자 미래 100년의 먹거리인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산학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그 첫 단추이자 핵심인 미래차 국가산단을 반드시 유치해 사물인터넷(IoT)를 넘어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산업 등을 융합한 사물이동(MoT·Mobility of Things)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논이모작 직불금 219억 지급

대상작물 재배 2만 3000여 농가... 전국 사업량의 50% 차지

전남도가 논이모작을 재배하는 2만3000농가(4만3000ha)에 직불금 219억원을 지급한다. 이는 전국 사업량 8만5000ha의 50%를 차지하는 규모다.

논이모작 직불제는 발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과 주요 발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인 논에 전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대상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지급한다.

대상 농작물은 쌀보리, 밀, 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이며,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이다.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최근 지급 대상자를 확정, 순차적으로 신청농가 통장에 입금할 예정이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논이모작 직불금은 겨울철 논에 보리, 밀, 귀리 등을 재배토록 함으로써 농한기 농가소득 창출과 식량 자급률 제고에 보탬이 되고 있다"며 "올해 밀, 조사료를 심어 내년엔 시행하는 전락작물 직불제(밀·조사료+가루쌀·콩)와 연계하면 1ha당 25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지방어항 건설사업 2030년까지 완료

전남도, 직접 추진 전환... 내년 해남 영전항 등 3곳 시작

전남도가 지난 1996년 사군에 위임했던 지방어항 건설사업을 앞으로는 도에서 직접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신규사업 대상지는 해남 영전항, 완도 신흥항과 가교항 등 3곳이다.

지방어항 건설은 어항 주변 여건과 어민 이용실태를 반영해 방파제, 불양장, 선착장 등 어촌 핵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원활한 어항의 이용과 어선의 안전한 수송으로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어항 대부분이 섬과 육지부 끝단에 위치해 사업장 관리와 민원 신속 대응 등을 위해 시군

에서 기본·실시설계와 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도와 지방도 건설, 연륙·연도교 신설 등으로 섬 지역과 어항 간 이동이 개선됨에 따라 전남도가 2023년부터 직접 지방어항 건설사업을 추진기로 한 것이다. 다만 현재 공사 중인 지방어항은 해남 사군이 마무리 짓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 지방어항은 총 93개로 이 중 59개소는 건설이 완료되고 15곳은 공사 중이다. 2027년까지 미착수 19개소를 매년 3~4개씩 신규 발주해 2030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내일 '창업포럼' 연다

DJ센터서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생태계 성과 공유 등

광주시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지역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창업지원기관 실무자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11월 광주창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창업포럼은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창업 유관기관, 투자자 등이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포럼 행사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4시 정기적으로 열리며, 올해는 지난 6월부터 대회 평균 200여 명씩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성과를 공유하고,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창업지원사업 설명회 ▲국내 유니

콘 기업 쏘카(SOCAR) 초청 특강 ▲광주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성과 공유 ▲창업자 네트워킹 파티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유니콘 기업 초청 특강에서는 쏘카(SOCAR) 지주원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쏘카 창업 스토리와 앞으로 비전, 광주지역 후배 창업자를 위한 조언까지 담백하게 풀어내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근중 광주시 창업진흥과장은 "광주는 '창업성 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를 선포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창업경제 진흥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업체 모집

농수축임산물·공예품·체험 관광서비스 등 112개 품목

전남도가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에 나섰다.

전남도는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평가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모는 전남도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답례품목에 대해 공급업체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112개 품목으로 농수

축임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 체험·관광서비스로 나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에서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공급업체 평가는 기업의 안정성, 지역 연계성, 사업목적 부합성, 상품구성의 적정성 등 6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해 이뤄지고, 친환경 인증상품, 지리적 표시등록품, 도지사 품질인증상품 등은 가점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12월 중순까지 공급업체 선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12월 말까지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자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11월 선착순 30분에 한하여 이장비 지원해드립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